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2025. 9. 15. Vol. 35

초혁신경제 1차 추진계획 발표

- 2025년 9월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지난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 분야,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 K-붐업 분야에 대한 15대 프로젝트 발표
  - (첨단소재·부품) SiC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Graphene), 특수탄소강
  - (기후·에너지·미래대응)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 (K-붐업)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게임·웹툰 등), K-뷰티, K-식품

- 이번 추진계획은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포함하며,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집중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함.

▌5개 과제 목표 및 세부 이행 방안 ▐

과제	목표	세부 이행 방안
SiC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제고 (현재 10% → '30년 20%)	· SiC 웨이퍼 소재-상용소자-전기차·그린에너지용 모듈로 이어지는 핵심기술 개발 · 화합물 전력반도체(소자·공정·패키징 등) 특화형 석·박사 인재양성 추진 · SiC 실증 인프라 구축 · SiC전력반도체 기업 지원(지분투자, 저리대출 등)
LNG화물창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	·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개발 · 화물창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 ·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구축 지원 · 융자 지원 방안 수립
그래핀	그래핀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 열관리 상용화 기술개발 ·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 AI 기반 그래핀 제조공정 및 수요실증기반 구축 · 국내 나노전시회 참여지원 및 해외 홍보 추진 · 해외 안전성 규제 대응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연구역량 강화
특수탄소강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	·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및 R&D 로드맵 수립 추진 · 고부가·고정밀 특수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
K-식품	'30년 K-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K-할랄 18억 달러)	· K-콘텐츠 연계 한류 마케팅 강화 · 글로벌 B2B·B2C 플랫폼 입점 지원 · 인기 어플·인플루언서 연계 K-식품 홍보 강화 ·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 정책자금(융자) 지원 확대 · 현지 물류 인프라(공동물류센터, 콜드체인 등) 확대 ·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 K-할랄 마케팅 강화(해외 인증기관 상호인정 확대 등)

출처: 기획재정부('25.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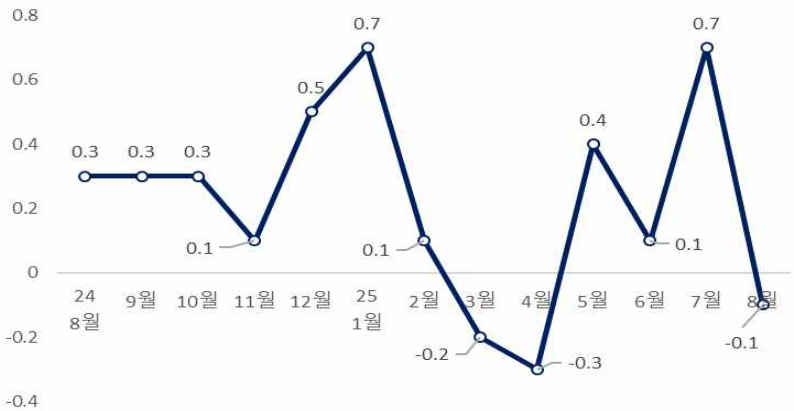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0.1% 하락 ▌2025-09-10 미국 노동통계국

- 2025년 9월 10일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8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를 발표함.
  - 전월 대비 (계절 조정 후) 0.1%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계절 조정 전) 2.6% 상승함.
  - 식품·에너지·무역서비스를 제외한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 중간재 수요가격지수(Intermediate demand price indexes)
  - (가공재)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문(0.4%)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하였음. 특히,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비가공재) 에너지(-2.5%)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하였음.
- 서비스 중간재 수요가격지수(Intermediate demand price indexes for services)
  - (서비스) 무역·운송·창고서비스를 제외한 부문(0.6%)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

❖ 지난 7월 개인소비지출(PCE)의 소폭 상승(주간브리프 Vol.33)에 이어 8월 생산자물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임. 반면, 미국 고용 시장 둔화가 이어짐(주간브리프 Vol. 34)에 따라,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짐.

▌2024 8월~2025년 8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추이(계절 조정 후 전월 대비) ▌



주: '25년 4~7월 수치는 오류 수정에 따라 지난 발표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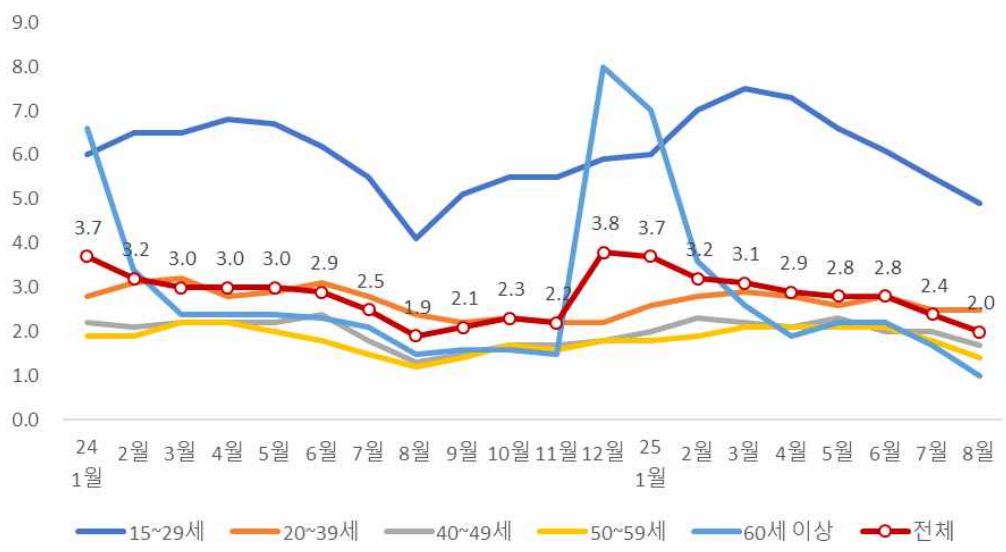
국내 경제 동향

2025년 8월 취업자 증가폭 축소, 청년·제조업 고용 부진 ▌2025-09-10 통계청

- 2025년 9월 10일 통계청은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음. 8월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함.
- 2025년 8월 취업자는 2,89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6천 명 증가하였음. 그러나 증가폭은 지난 5월(24만 5천 명)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함.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하였음.
  - 전월 대비 0.3%p 감소
- (산업별 고용) 보건업·사회복지(30만 4천 명↑), 교육서비스업(4만 8천 명↑), 부동산업(4만 명↑) 등에서 증가하였음. 반면, 농림어업(-13만 8천 명), 건설업(-13만 2천 명), 제조업(-6만 1천명) 등에서 감소함.
- (연령별 고용) 60대 이상(18만 명↑)과 50대(5만 명↑)에서 증가, 30대(-5만 명), 20대(-3만 명) 등 청년층 고용은 부진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 8천 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6만 7천 명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는 10만 3천 명 감소

❖ 8월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제조업·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의 가파른 감소세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024년 1월~2025년 8월 실업률▐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2026년 농림수산 예산 개산(概算) 요구 발표 ▌2025-08-29 농림수산성

- 일본 정부의 2026년 농림수산 예산 개산 요구는 2조 6,588억 엔으로 전년 대비 199억 엔 증가함(주간브리프 2024 Vol.36.).
  -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나 최근 쌀 부족 이슈에 근거하여 농업 구조의 전환 대책 실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량 시스템 확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예산 요구액을 산정함.

  * 일본의 개산(概算)은 한국의 예산안과 유사한 의미임.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확정하기 전에 큰 틀에서 규모와 방향을 가늠하는 방식을 의미함.

- 농림수산성은 2026년 농림수산예산 개산 요구 개요를 ① 생산자 판단에 따른 수요 대응 생산, ② 식량안보 강화,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 농촌 진흥, 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식량 시스템 확립, ⑥ 다면적 기능 발휘, ⑦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자원 순환 이용 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공표함.

▌2026년 일본 농림수산예산 개산 요구 주요 내용 ▌

구분	추진 내용	주요 사업 및 예산 요구액
생산자 판단에 따른 수요 대응 생산	경영안정 기반 재구축 (경영 안전망, 농지·공동이용 시설의 집약화 등 생산기반 강화)	농지집약 추진: 161억 엔
	농업인의 생산 의욕을 지지하는 정책 강화 (스마트 농업 도입, 신품종 전환, 혁신적 신품종 개발, 선진 기술 보급 등)	쌀 등 안정 생산·수요 개척 종합 대책 사업: 40억 엔
식량안보 강화	보리·콩 주요 재배, 윤작제, 보관 시설 정비 등 추진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2,960억 엔
	채소, 과수, 화훼, 차·약용작물, 양봉 등의 생산기반 강화, 가축 개량 추진 등	지속적 생산 강화 대책 사업: 160억 엔
	수출 산지 형성, 국내외 공급망 연결 강화, 일본 방문 외국인 대상 식품 소비 확대 및 수출 연계 지원	수출산지·사업자 육성: 81억 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지 구획화, 논 범용화 및 밭화, 수리시설의 계획적 수리 및 에너지 절약, 농업용 저수지 방재 대책 등	농업농촌 정비사업: 3,941억 엔
	지역 계획을 통한 농기계 도입, 농지은행에 의한 농지 집약화, 공동이용 시설 재편, 신규 취농자 확보, 고용노동 환경 정비 등	지역계획 지원: 725억 엔
	수입보험, 게타·나라시 대책(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채소가격안정대책 등 경영안정 제도 운영 및 강화	수입보험제도 실시: 466억 엔
농촌 진흥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과제 해결, 농업·복지의 제휴 추진, 농촌 지역 경영 조직(RMO) 형성 등	농산어촌진흥교부금: 86억 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식량 시스템 확립	농축산분야의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 유기농산물 생산·수요 확대 등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에 근거한 정책 추진 가속화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 추진 종합 대책: 39억 엔
	화학농약·비료 50% 이상 저감 활동과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있는 영농 활동 지원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 29억 엔
다면적기능 발휘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위해 공동 활동, 중산간지역의 농업 생산 활동,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 생산 활동 지원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500억 엔
2050년 탄소중립에 공헌하는 산림 자원 순환 이용 대책	임업경영체의 산림 집적·집약화, 국산 목재 안정 공급, 목재 산업의 생산기반 강화 등 산림·임업·목재산업 정책 종합 추진	산림·임업·목재 산업 그린 성장 종합 대책: 182억 엔
	산림흡수원 기능 강화, 산림의 집약화를 위한 재조림 등 추진	산림정비사업: 1,485억 엔

글로벌 식량안보 전망 발표 ▌2025-08-29 USDA ERS

-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ERS)은 「Global Food Assessment 2025-35」 특별전망 보고서를 통해 83개 저·중소득 국가의 식량안보 현황과 향후 10년간 전망을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83개국의 2025년 식량안보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GDP 증가(3.7%)와 식품가격 상승률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2025년 전체 인구의 약 13.5%(6억 420만 명)가 식량불안정*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26.7% 감소(2억 2,050만 명 감소)한 수치임.
  - 2035년까지 식량불안정 인구는 3억 3,290만 명(6.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함. 국민 1인당 일일 2,100kcal 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인구의 비율을 식량불안정 인구로 추정함.

- 다만, 식량 격차(food gap)*는 2025년 353kcal에서 2035년 362kcal로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식량불안정 인구 규모는 감소하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카리브해(특히 아이티) 등 취약 지역에서는 여전히 식량 접근성이 낮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결핍의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식량불안정 인구가 실제로 섭취가능한 평균 열량과 1일 2,100kcal이라는 열량 기준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식량불안정 정도의 심화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됨.

- (곡물 수급) 2035년까지 곡물 수요는 연평균 2.2% 증가하여 14억 톤에 이를 전망임. 그러나 생산은 연 1.6% 증가에 그쳐 특히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아시아 및 구소련 지역의 소득 증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가 수요 확대를 견인

❖ 이번 전망은 세계 곡물시장 불균형 및 지역 간 식량불안정성 격차의 심화를 재확인시켜줌. 선진국의 무역정책,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여부가 향후 지역 간 식량안보 격차 개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한국 또한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 곡물 비축·공급망 다변화 전략 강화가 필요함.

국내 농업·농정 동향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수준 유지 ▌2025-09-06 농림축산식품부 ; FAO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5년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0.0포인트)과 유사한 130.1포인트를 기록함.
  - 곡물과 유제품은 하락하였으며, 유지류·육류·설탕은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는 안정세를 유지
- FAO는 2025/26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29억 6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량은 1.6% 증가(29억 2천만 톤), 기말 재고량은 3.7% 증가(8억 9천만 톤)할 것으로 내다봄.
  - 곡물은 밀·쌀 가격 하락과 옥수수 가격 상승이 혼재
  - 유지류는 팜유·해바라기유 중심으로 상승
  - 육류는 소·양고기 상승, 돼지고기 안정, 닭고기 하락

▌세계식량가격지수 품목별 세부 동향▐

품목	가격 변동	주요 배경 요인
곡물	-0.8%	· 밀: 공급 확대 및 주요 수입국 수입 둔화 · 옥수수: 유럽 폭염·미국 수요 증가 · 쌀: 수출 경쟁 심화
유지류	+1.4%	· 팜유: 주요 소비국 수입 수요 강세·바이오디젤 정책 · 해바라기유·유채유: 공급 부족 · 대두유: 공급 증가 전망
육류	+0.6%	· 소·양고기: 美·中 수요 증가와 오세아니아 공급 부족 · 돼지고기: 안정 · 닭고기: 브라질 공급 충분
유제품	-1.3%	· 버터·치즈: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 전지분유: 수요 부진 / 탈지분유: 수출 제한과 동남아 수요 증가
설탕	+0.3%	· 브라질 수확량 저조와 중국 수입 수요 증가 · 인도·태국 작황 호조로 상승폭 제한

▌2024년 8월~ 2025년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